

전주시 주말 문화공연 풍성

21일 경기전내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전주마당 창극 등

전주시가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매주 주말에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주의 주말을 문화로 수놓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21일 한옥마을과 경기전내 전주시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책을 밀려 습기를 제거해 충해를 막는 조선왕조실록 포쇄(曝曬)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에 처음 재현된 조선왕조실록 포쇄는 올해 3번째 행사이며 올해부터 조선시대 기록문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첫 재현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실록 포쇄사관 행렬, 영접례 및 기념식, 포쇄재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운영된다. 시는 오는 7월 23일과 9월 24일에도 포쇄 재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재현행사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포쇄 전 과정에 전문가의 설명과 포쇄 관련 창작 판소리도 가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전주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김영목판이나 한글 고전소설 등 원본이라는 책을

적어낸 출판의 도시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5년째를 맞아 전주를 대표하는 공연문화로 자리매김한 전주마당창극은 올해도 신명나게 한옥마을의 밤을 깨우기 위한 공연 준비로 분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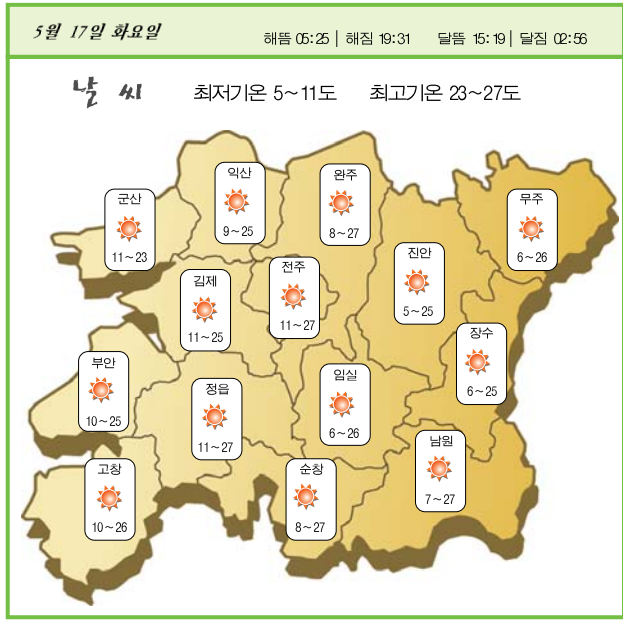
전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주마당창극 다섯 번째 공연은 오는 21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전통문화관 흥례마당에서 토요일공연인 마당창극 '아나였다, 배갈리다'를 진행한다. 올해 토요일 공연은 판소리 '수궁가' 중 '용궁살 처' 대목을 전주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옥과 판소리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문화관광콘텐츠'로 기획된 전주마당창극은 공연 티켓 1장(3만원)으로 전주마당창극 관람은 물론 전통문화체험과 잔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에는 오후 8시부터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자음을 겨루는 '제10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본선대회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김영목판이나 한글고전소설 등 원본이라는 책을 적어낸 출판의 도시"라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서 자리 잡아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목판이나 한글고전소설 등 원본이라는 책을 적어낸 출판의 도시"라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서 자리 잡아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박물관, 조선시대 고문서·목판 등 전시

조선시대 왕의 명령서에서부터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부모가 딸을 노비로 판 문서, 이혼계약서 등이 적힌 고문서와 목판 등 조선시대 생활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고문서와 목판 등이 전시된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제 20회 한지문화축제에서 한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고문서와 목판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특별전으로 오는 21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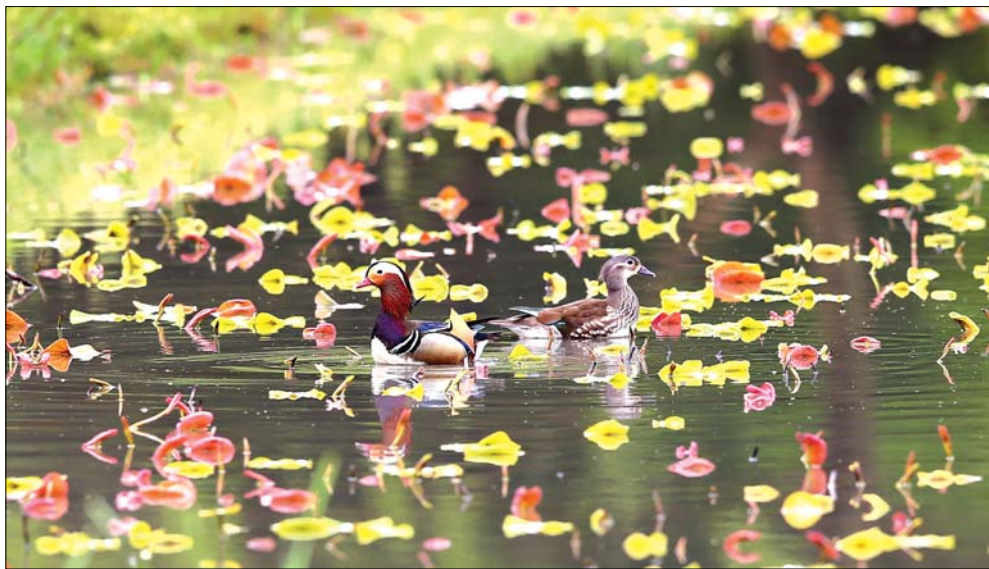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고문서와 고서, 그리고 책판 전시를 통해 한지의 장기 보존성을 확인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이 흥미와 기록문화의 진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총 4부로 기획되었다.

1부에서는 왕의 명령서와 과거 합격증 관직 임명장 등을 통해 고문서에 기록된 왕의 권위와 오랜 세월 보존되는 한지 우수성 느낄 수 있도록 했다.

2부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이나 계약 관계 등을 기록한 고문서를 전시하여, 이를 통해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부는 완산 김영에서 만들어진 목판과 고서를 전시하여 과거 우수한 인쇄와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4부는 전시실 입구에 체험용 목판과 시전자판을 이용한 무료 목판 찍기 등의 체험도 마련된다.

고동호 전북대학교박물관장은 "우수한 품질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지 문화축제에 수 백 년을 견딘 책과 문서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잎 사이에서 노니는 원앙

16일 어느 연꽃단지에서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한 쌍이 새록새록 피어난 연잎 사이로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김영란법 기본정신 그대로 따를 터”

김 교육감 “내수시장 위축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하려면 제대로 해야”

“김영란법 시행령에 개이지 않고 법률 그대로의 기본정신을 따르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6일 확대간담회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에서 이 법률이 강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

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14개월이 만인 지난 9월 당초 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시행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계, 일부 업계에서는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전

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은 거래로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시행령에 개이지 않고 법률 그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병원 정환정 교수팀 간암치료제 개발 박차

카이오바이텍 ‘새로운 방사선 색전술 제제 이용 임상시험’ 계획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핵의학과 정환정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간암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환정 교수팀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방사선 의약품 전문연구소인 (주)카이오바이텍이 ‘새로운 방사선 색전술 제제 이용 간암 환자치료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오바이텍은 방사선 의약품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기업이다.

전북기술지주회사와 새한산업이 출자하고 전북대학교의 기술투자자, 전북대병원의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한 산·학·관·병 형태의 연구소기업이다.

대학과 병원에서는 간암치료의 한 방법인 방사선색전술 제제 개발을 위해 그동안 대학과 병원의 연구 인력을 통해 고위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산·학·관·병 조인트벤처인 (주)카이오바이텍을 설립해 의료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연구 및 조인트벤처 설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전북대병원 정환정 교수 연구팀(핵의학과 소속)은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방사선색전술 연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체개발하여 구축했으며 국내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국제특허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팀은 전북대병원을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 상태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효과를 임상적으로 증명하고 제품화를 진행한다는 계획과 함께 해외로의 기술 및 치료시스템 차원의 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색전술은 간암 환자 치료의 한 방법인 색전술보다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상품이 없어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도 매우 고가이다.

연구팀은 이번에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방사선색전술 제제가 상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견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 한지 수의, 남궁함
- 한지벽지, 장판
- 수제한지탁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담지, 예견지
- 응용한지인간한지, 대례지, 한회지, 순수운용지
- 아트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보말팩
-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전주시 <http://www.jeonju.go.kr>